

# 10분의 기적



김 주 식 의  
세태 만화경

따르릉!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하게 시렸다. 스무 해 전의 자명종 시계! 시들하던 보일러가 서비스 수리를 받고 생생 돌아가던 옛그제, 자명종 소리가 뜬금없이 왜 그리 듣고 싶던지. 녀석도 새 건전지를 갈아 끼우면 멀쩡하게 돌아갈까? 나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걸고 그 잊힌 녀석을 서랍 속에서 기어이 찾아냈다. 초침은 돌아갈까? 긴 세월 녹슬어 미동조차 없을까? 과연 어떻게 전개할지, 드라마틱한 그 예측불허의 초침 향방에 마음 졸이기도 처음이었다.

소마소마했다. 새 건전지 하나를 장착할 때 찌꺼기였다. 그게 아까부터 불안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초침이 잘 돌아간다. 기대하지 않았던 생동!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재깍재깍! 소리도 힘차다. 알람 시간에 이르자 따르릉! 법석을 놓는 건 예전처럼 여전하다. 그런데 울대가 쉬어 잡겼다. 안쓰럽고 측은했다. 한 고개 한 고개 까딱까딱 오르내리는 초침이 힘겨워 보이니까지 한다. 술한 고락을 함께 호흡해온 초침의 숨결. 갑자기 녀석과의 추억이 밀물져왔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녀석은 내 삼십대의 삶을 흔들여 놓았다. 아침을 여는 게 녀석의 직무라지만 소리가 너무 컸다. 새벽녘마다 팡파르를 울려댔다. 요즘처럼 밤이 길고 추운 날, 절절 끓는 방바닥에 노글노글해진 뭍이 어디 쉬 일어나려 하겠는가. 그러나 어찌했나. 뉴스 거리를 찾아 누구보다 일찍 눈을 떠야 하는 게 숙명인 것을, 녀석은 내 무거운 눈꺼풀을 끌어올리고 세상을 읽게 했다. 그리곤 내일의 아침을 기억하며 재깍재깍 숨을 고른다. 참 고마운 녀석이다.

녀석은 살림 목록의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보물 같은 존재였다. 그 보물을 고른 건 아내였다. 믿음직한 소리 하나만 믿고 꼭 집어냈다. 녀석을 상전 모시듯 안방 탁자 위에 앉혀줬다. 듣직했다. 신기하게도 알람 소리는 매번 다르게 들렸다. 기분이 산뜻한 날엔 리드미컬했다. 톤이 높긴 해도 부드러운 음색이 묻어났다. 침울할 땐 쇠붙이 소리가 끼어든다. 소음이다. 추적거리는 비와 합창하는 날엔 처연하게 들렸다. 소리에는 삶의 감정전선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녀석의 애칭은 10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 딱 요맘때, 아침회의가 있던 날이었다. 평소처럼 좀 여유가 있었거니 했는데 신문사 복도 앞 벽시계는 회의 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알고 보니 녀석이 10분 늦게 잠을 깨운 것이다. 어째 알람

소리가 영 시답잖게 울렀다는 생각이 퍼뜩 스치긴 했다. 건전지 약발이 흐려진 틈을 타 며칠 새 녹장을 부렸던 거다.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녀석에게 그 전 말을 물어볼 수도 없지만 매일 시나브로 수초씩 값어 먹었을 것이다.

예초에 손목시계를 차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요즘처럼 시간을 띄워주는 스마트폰이 있었다더라면 모를까. 녀석 입장에선 우리 내외는 미련 곱뎠이었다. 세상을 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1초의 가치를 허투루 보지마라고 녀석은 말하고 있었다. 10분의 시간이 갖는 삶의 보폭! 그 너비를 절감했다. 그날 이후 녀석을 10분이라고 불렀다. 내친 김에 녀석을 10분 앞질러 세상을 달려가게 했다. 깨어나는 시간이 10분 더 빨라진 것이다. 아니다. 그건 10분의 여유였다.

그 역발상이 우리 내외의 삶 패턴을 확 바꿔놓았다. 10분 상당인 생체 리듬의 시계. 10분 더 일찍 일어나는 눈금에 맞춰 놓으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은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진다. 생활 활력소가 10분간 재충전되는 것이다. 그 가치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일에 대한 추동력, 창의력, 열정. 능률이라는 삶의 샘물이 솟아나서다. 우리 집 거실에 걸린 둥근 벽시계는 늘 10분을 앞서 달린다. 보물 같은 자명종이 대물림해준 지혜, 기적의 10분이다. /연문인-세태평론가



지난 15일 진행된 MOU 체결식에서 고길호 신안군수(왼쪽)와 박남주 풀무원식품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풀무원

## 풀무원-신안군, 수산물 유통 MOU

판로개척으로 어촌 소득증대 기대 한다.

특히 풀무원의 김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신안군 장산도 해역 일대 김 양식장을 개발하여 김 계약재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래김, 돌김 등 마른 김 제품의 원재료인 원초 물김의 안정적인 수급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남주 풀무원식품 대표는 "원초 물김의 안정적인 재배를 시작으로 신안군의 다양한 고품질의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 수산 상품까지 신안군과의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우럭, 전복, 낙지, 왕새우 등 수산특산품을 활용한 바른먹거리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parkyu7854@



CJ헬스케어 오송공장, 연탄나눔 봉사활동 CJ헬스케어는 지난 15일 오송공장 임직원들이 충청북도 오송 지역 이웃들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매년 겨울 CJ헬스케어 오송공장이 충북연탄은행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날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오송공장 임직원들은 오송 지역의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연탄 및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웃이 따뜻한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왔다. /CJ헬스케어

## 고원화에 발목 잡힌 성장 불씨



키 봉 준  
(파이낸스&마켓부)

올해 한국경제의 주요한 하방요인으로 원화 강세(환율 하락)가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원화가 달러당 106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환율 하락은 수출기업들의 상품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실제 환율 변동은 올해 기업 경영의 가장 큰 대외 불확실성 요소로 꼽히기도 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같은 환율 하락에 관조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달 초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만남을 갖고 새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사

람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각 최근 원화 강세와 관련해 "(환율 하락을)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표명했다. 기자들이 환율 하락이 수출기업의 실적 하락을 야기한다며 질문 공세를 이어갔지만 두 경제수장은 "(환율의)과도한 쏠림 시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두 사람의 관망에 다음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오히려 더 강세를 나타냈다.

사실 정부가 적극적인 환율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다. 자칫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환율조작국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조작국은 미국 정부의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환율 정책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서 한 차례 위기감을 불러온 바 있다. 환율조작국의 기준이 되는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경상수지 흑자

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특히 최근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협상에서 불리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원화 가치 강세 현상 속 환율 개입이라는 카드를 감추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올 들어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타격이 날로 심해지면서 시장에선 이제 정부의 환율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 경제를 표방하는 우리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결국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통상 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은의 적절한 환율 정책으로 힘겹게 피어오른 한국경제 3%대 성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bj35sea@metroseoul.co.kr



KB손보, 세브란스 병원 등과 간편보험금 청구 MOU KB손해보험은 세브란스 병원, 레몬 헬스케어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들의 간편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 개발을 위한 3차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보험금 간편 청구 프로세스 등 보험 관련 디지털 서비스 개발, 레몬 헬스케어와 헬스케어 플랫폼 관련 의료협력 체계 구축, 각 기관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제휴 영역 발굴 및 추진 등이 주요하게 추진됐다. KB손보 양종희 사장(오른쪽부터), 세브란스 병원 이병석 병원장, 레몬 헬스케어 흥병진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손보

- 인사
- ◆국방부 ◇과장급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 차용국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과장 신일현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은성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정철 조민행 조준미
  - ◆한전원자력연료 ◇처·실장급 △인사노무처장 오문교 △건설기술실장 김승진 △기획처 성과관리팀장 염준호 △경영지원처 총무팀장 이종무 △

- ◆경수로연료처 경수로연료기술팀장 김용관 △튜브생산처 튜브개발팀장 김득연 △원자력안전처 원자력안전팀장 설중근 △경수로중심실 품질안전기술부장 이신영 △핵연료엔지니어링실 핵연료서비스부장 이상국 △원전사업처 설계관리팀장 남기일 △핵연료연구실 소재개발부 책임연구원 이승재 △팀·부장급 △사업관리실 동반성장부 연진호 △정보보안실 연료운송부 임태욱 △UAE사업실 ESM사업부 최영호 △감사실 기술감사팀 최재순 △정보보안실 사이버보안부 정병기 △세라믹처 세라믹기술팀 김영로 △튜브생산처 튜브성형팀 안창모 △NSA튜브사업실 NSA튜브운영부 김진목 △품질보증실 품질보증부 장경훈 △품질보증실 품질협력부 김정호 △원전사업관리처 인허가전략팀 장찬수 △노심설계처 OPR노심설계팀 김재식 △노심설계처 열수력설계팀 박성규 △안전해석처 신규원전사고해석팀 류계열 △안전해석처 가동원전사고해석팀 류석희 △설계연구실 성능해석기술부 전종국 △핵연료엔지니어링실 핵연료안전성능부 김장욱 △핵연료엔지니어링실 핵연료안전성능부 조운철

- ◆볼보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양성모
- ◆한국폴리텍대학 △기획국장 김봉준 △교육훈련국장 이재운 △운영국장 이연보 △경영혁신담당 김정숙 △교육훈련연구센터장 표정선
- ◆조세금융신문 △편집국장 신승훈 △전문이사 겸 미디어출판국장 양학섭 △콘텐츠사업국장 이지한 △콘텐츠사업국 부국장 윤봉섭

### 부음

- ▲ 문선재(전 강원대 총장)씨 별세, 홍화자씨 남편상, 문호윤(JYP엔터테인먼트 본부장)·지윤·혜윤(고려대 교수)·재운씨 부친상, 이은주씨 시부상, 남궁민(호평고 교사)·송진호(아모레퍼시픽 차장)씨 장인상 = 15일 오전 4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오전 5시. 02-3010-2261
- ▲ 신하자씨 별세, 황정택(원예협동조합)·인택(C&D건설부장)·미애·현택(KBS 프로덕션2 기자)씨 모친상, 김용상(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행정실장)씨 장모상 = 16일 오전, 동이리장례식장 모란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63-843-4444



에몬스가구 '11기 장학생' 12명에게 장학금 에몬스가구는 '에몬스 장학생' 11기로 뽑힌 12명의 대학생에게 50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와 대학생 자녀를 둔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장학금도 지급했다. 에몬스는 현재 연간 1억원 가량의 사내 장학금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에몬스가구 조성세 사장(왼쪽 첫번째)이 안산 고잔동 본사에서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몬스가구

**metr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1721-9800, FAX: 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 집 국 장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